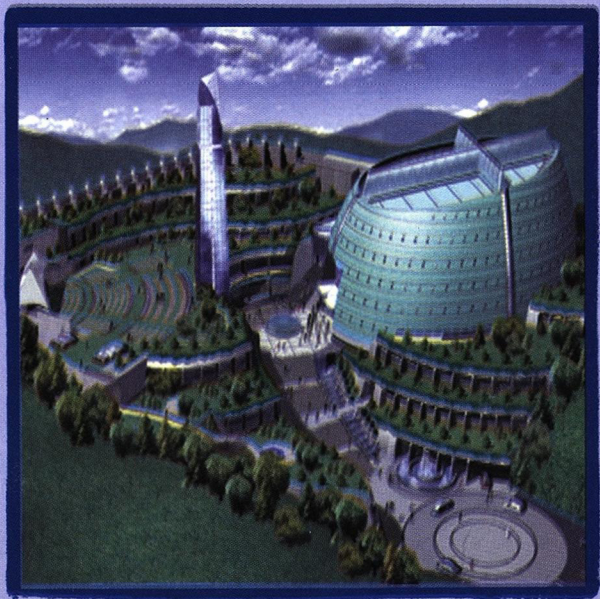


교회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Who Needs the Church?



한국 오늘의 양식사

신앙 성장 시리즈 2

교회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Who Needs the Church?

한국 오늘의 양식사

차례

발행인의 글 / 김상복 목사.....	4
1. 교회는 후원 모임인가?	7
2. 교회란 무엇인가?	9
3. 교회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11
4. 어떤 교회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45
5. 완전한 교회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	55

교회의 참된 모습



교회에 다니면서도 막상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상당히 많으리라 짐작한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대로 비기독교인들을 그들대로 교회에 대한 온갖 주관적 인상들을 갖고 있다. 교회는 이

래야 하고 교회는 저래야 한다며 모두 일가견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관이 있어서 현대 교회가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는 실망하기도 하고 마음에 들 때에는 칭찬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며 교회는 누구에게 필요한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다.

이번에 「한국 오늘의 양식사」는 이 작은 책자를 번역출판함으로써 교회 안팎의 빈 공간을 메꾸어 보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이 책자는 「미국 오늘의 양식사」에서 출판한 것을 「한국 오늘의 양식사」번역위원들이 번

역해서 신앙 성장 시리즈 두번째 권으로, 「오늘의 양식」을 즐겨 사용하며 신앙 성장을 계속하고 계시는 전국의 가족들을 위하여 출판한 것이다. 이 소책자를 통해 먼저 「오늘의 양식」가족들의 교회관이 정립되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물론 비기독교인들마저도 교회의 참된 모습을 이해하게 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사실상 평범한 사람들이 간략하고 쉽게 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었다. 이 책자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건전한 교회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2000년이나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교회의 신비와 아름다움과 그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여 영적인 갈증으로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대답을 줄 수 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려진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신부로서 단장되고 정돈된 교회가 되어 이 시대의 새로운 희망으로 다시 부각되었으면 한다.

이 책자를 출판하기 위해서 열정과 희생을 기울여 기쁘게 수고해 주신 「한국 오늘의 양식사」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 책자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1

교회는 후원 모임인가?

알콜 중독자 모임이 교회처럼 활동한다고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생각해 봅시다. 이 모임의 회원들이 정장을 하고 모이면서도 그 모임의 진정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임을 갖지 않는 시간에 이 모임의 규칙을 준수하겠다는 책임과 결심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임의 목적을 공유할 생각도 없고 모임과 개인간에 당면한 문제를 다루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임을 조직한 사람들이 한때는 교회에서 무언가를 배웠습니다만, 이제는 교회가 이들 모임으로부터 배워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 모임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여럿이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혼자 했더라면 얻지 못했을 정신력을 여러 사람이 함께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깨달은 사람들보다 더 모임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는 사람들보다 더 모임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회가 후원 모임이 아니라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과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다면,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온전히 새로운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하여 지나치게 비판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하여 건설적인 면에서 비판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그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2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를 정의하려면 신약성경에서 그 기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세기의 교회는 교파가 아니며, 전례하는 종교 건물 양식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많은 교회들로 구성되었으며(로마서 16:4,16), 또한 각각의 교회는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로마서 16:5)

우리는 이러한 1세기의 교회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 교회가 모두 불

완전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불완전한 교회들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를 필요로 했고 또 완전하신 주님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12-27)

우주적이면서 하나라는 관점에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는 믿음을 통해(사도행전 2:23-47)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고린도전서 12:13)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히브리서 12:23)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지역적이고 복수라는 관점에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서로 나누기 때문에(고린도전서 1:2)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히브리서 10:23-25)을 말합니다.

기능적인 관점에서, 교회의 성경적인 모습은 1) 말씀을 가르치고 2) 기도하고 3)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며 떡을 떼고 4) 믿는 자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세례를 주고 5) 찬송하고 6) 경배와 찬양을 하며 7) 소유를 서로 나누고 8) 권징을 시행하며 9) 위로와 격려를 하고 10) 가난한 자를 돕고 11)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3

교회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신약성경을 보면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일곱 부류로 나누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들 각각의 경우에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1) 깨어진 사람들(BROKEN PEOPLE)



깨어진 사람들이란 자신의 한계에 도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인간 앞에서도 낮아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위험성 등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이런 깨어짐 없이는 자신에게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필요를 깨닫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느 병원 응급실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병원에 앉아 있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왜 그곳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병원으로 급히 와 달라는 전화를 받고 왔을 뿐입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신원 확인을 했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는 앉아서 대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

았습니다.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입원했느냐고 초조하게 묻자, 그 대답은 “아닙니다. 그냥 앓아 계세요. 곧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을 뵈러 올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의 이 답답함을 여러분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늦게 나타난 의사가 몇 가지 의례적인 질문을 던지고는 각 사람들에게 병원을 위해 기부금을 요청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에 가는 것이 위급 상황이 아니면
서도 응급실에 알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다면, 바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후원하는 모임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들보다 더 위험한 문제들을 안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정서 장애와 무절제한 식생활,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의 낭비와 같은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개인적인 영적 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 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케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라 하였으니”(히브리서 3:12-15)

히브리서 3:7-11의 뜻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영적인 후원 모임이 필요할 만큼 우리가 늘 부족하다는 것과 다음과 같은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마음을 강박케 하는 위험(8절)
-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위험(10절)
- 마음이 미혹되는 위험(10절)
-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위험(11절)
- 하나님을 떠나는 위험(12절)
- 죄의 유혹에 빠지는 위험(13절)

이러한 우리의 필요들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들에게 매일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후반부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도와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브리서 10 : 23-25)

영적으로 깨어진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필요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겸손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깨어진다는 것은 자만이나 자기 만족과 반대되는 뜻입니다. 깨어짐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매일의 위험을 볼 수 있게 되며, 이것이야말로 모든 일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목회자와 교인들이 서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계속 일깨워 주지 않는다면, 교회는 아무 쓸모가 없는 병원 응급실처럼 보일 것입니다.

개인 또는 그룹 공부를 위한 질문

1. 새로 믿기 시작한 사람과 오래 믿은 사람 중에 누가 더 교회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합니까?
2. 히브리서 3:7-19과 히브리서 10:25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3. “죄에 대한 무감각함”이 우리의 위급함과 신중함에 대한 의식을 어떻게 소멸시킵니까?
4. 상한(깨어진) 심령으로 가득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2) 홀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DEPENDENT PEOPLE)



전구 하나를 갈아 끼우는 데 몇 사람의 교인이 필요할까요? 세 사람이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전구를 들고 사다리 위에 올라가고 두 사람은 사다리를 붙잡으면 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교인들은 서로가 필요하다

고 느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서로의 필요에 대하여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은 어떤 교인이—목사, 집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혼모, 보모 등—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12-31에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몸이 말하는 발과 말하는 귀를 가진 것으로 가정하여 설명합니다(15,16절). 바울은 몸의 지체에 대한 비유를 사용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거나 낮추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상호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비유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몸이 되었고…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시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

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린도전서 12: 13-27)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서로 의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서로 의지하는 것을 용납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 준다(13절)
- 우리는 한몸의 지체들이다(13절)
-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21절)
-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는다(26절)
-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26절)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의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교회의 어떤 지체도, 자기가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옳다거나 다른 지체보다 더 중요하다거나 더 영광을 받아야 한다거나 주목을 받을 만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목

회자로부터 허드렛일을 하는 봉사자, 그리고 숨어 있는 기도의 동역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성령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기쁘게 하도록 하셨습니다(고린도전서 12 : 18). 우리의 책임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구상은 그가 사랑하는 지체를 위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의 완전하신 지체는 그 지체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몸에 부한 자, 가난한 자, 목회자, 교사, 성가대, 기도의 역꾼, 선교사, 허드렛일을 하는 봉사자, 청소년 지도자들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우리를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손과 팔꿈치, 그리고 발로서 서로 조화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누구나 그의 몸에 허락하신 선물이요 소중한 자요 조심스럽게 세워진 지체임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몸의 지체들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고린도전서 12 : 23,24).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하찮게 보이는 지체들마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매우 중요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찮고 무가치하게 보아도 하나님은 소중하고 유용하게 보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기준이 우리 인간들과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가장 하찮게 보이던 지체가 어느 날 천국에서 가장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지체들에게 적절한 은사를 부여 하십니다. 우리는 서로가 어떤 식으로 필요한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은사를 주셨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여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지 어떤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많은 질문들은 우리가 서로를 향해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대답이 필요치 않은 것들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책임은 한몸된 지체들의 명단이나 은사의 종류를 나열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일을 행하고도 여전히 자신을 파괴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헐뜯을 수 있습니다(갈라디아서 5:15).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서로 돕는 자세가 도울 수 있는 능력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누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음을

말합니다(고린도전서 12:27-31).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고린도전서 12:31-13:13).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지체로서의 삶의 핵심입니다. 같은 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의존하는 지체라는 사실은 우리 자신의 태도에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웅변의 은사,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은사, 비밀을 풀어내는 지식의 은사, 가난한 자를 희생적으로 돕는 구제의 은사 등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돕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개인 또는 그룹 공부를 위한 질문

1. 우리가 서로 의지하는 것이 왜 믿음의 문제입니까?(고린도전서 12:12,13,22-25)
2.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언급된 지체의 삶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2장 전후 문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3. 사람이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고린도전서 12:18,31; 13:1-3)
4. 고린도전서 12장의 지체의 삶의 원리에 따라서 교회가 특별히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3)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IMPERFECT PEOPLE)



완전주의자와 접해 보면 마치 가시돋힌 선인장을 꺼안는 것과 같은 걸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와 격려는 잠깐입니다. 비판에서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휴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일도 완전하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완전주의자들에게는 항상 일이 제대로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이들은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서로 은혜스럽게 살아가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완전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관해서는 이상하게도 완전성을 요구합니다. 우리와는 별로 다를 바 없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적이면서 요구 사항도 많습니다. 자신의 실

수는 잘 잊으면서 남을 용서하는 일에는 인색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18:21-35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백만 원의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꾸어 준 몇백 원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설명한다면, 교인이면 누구나 자신의 죄책감과 실패에 대한 경험으로 콧대가 꺾여진 상태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과거의 음주벽이 되살아나려는 유혹을 받는 회복 단계의 알콜 중독자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과 자만과 자존심, 그리고 모욕을 양갓음하려는 습관 등 과거의 생활 방식과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요한1서 1:5-2:4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 자신들의 실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요한의 설명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어두운 가

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요한1서 1:6-2:1)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완전하지 않은 교회 안에서의 서로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것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 주님의 완전하심을 믿음(5,6절)
- 자신에 대한 정직함(6,7절)
- 죄에 대한 깨달음(8,10절)
- 자백의 필요(9절)
- 용서의 필요(7,9절)
- 의에 대한 결단(2:1)
-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2:1,2)

• 순종의 필요(2:3,4)

요한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기술하면서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양쪽을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의 길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일단 잘못된 길에 빠졌을 때는 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이해하는 것은 교회 내에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우리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1) 우리가 정직하게 되며 2)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겸손하게 되고(디도서 3:1-3) 또한 3) 하나님과 함께 의 행하기를 힘씀으로 잘못된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마태복음 5:6,7)

좀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불완전한 사람이므로 자만이나 독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보다 나아진다는 것은 더욱 자비롭고 깊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개인 또는 그룹 공부를 위한 질문

1. 완전주의자들은 다른 이들과의 교제에서 왜 자주 문제가 발생합니까?
2. 요한1서 1:6-2:4은 완전함을 추구하는 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루도록 도와주고 있습니까?
3. 마태복음 5:6,7의 긍휼과 마태복음 18:21-35에서 잘못을 지적하는 상황은 서로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데,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4) 배워야 할 사람들(TEACHABLE PEOPLE)



학생들의 수학 능력에 비추어 교수진의 실력이 워낙 뛰어난 대학이 있다고 합시다. 이 교수들은 정평 있는 학술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연구에 여념이 없는데, 이런 높은 수준의 가르침을 극소수의 학생들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배우고 싶어하고 또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학생들이 교수의 수준에 맞추어 수업받는 광경을 상상해 봅시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이미지와 흡사합니다. 영적으로 배우지 못했고 배우려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은 모세의 법궤가 코끼리나 얼룩말은 제쳐두고라도 타조 한마리도 넣을 수 없는 크기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스바냐가 성경 어디에 있는지는 고사하고 스바냐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서로에게 덕을 베풀고, 신중한 삶을 살고,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며, 자신을 희생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배우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성경을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그룹 형태의 그룹 지도나 일대일 차원의 관심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수준과 진도에 맞추어 배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다른 어떤 말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란 새로운 사랑의 언어, 새로운 철학, 새로운 논리, 새로운 역사관, 새로운 사회 생활, 새로운 음악 그리고 새로운 인간 관계론을 가르치기 위하여 존재하는 곳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어둠으로부터 구해 내야 할 필요성(에베소서 4:17,18)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11~15)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필요 때문에 교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 봉사에 대한 새로운 생각(12절)
- 관계 증진에 대한 새로운 생각(12절)
- 연합에 대한 새로운 생각(13절)
-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생각(13절)
-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것에 대한 새로운 생각(13절)
- 평안을 갖는 것에 대한 새로운 생각(14절)
- 유혹과 싸워야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생각(14절)
-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해야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생각(15절)

교회는 고상하며 사색적이며 논쟁의 소지가 있는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무지한 사람들을 돕는 데 열중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가정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병원의 문제도 그리고 인간 관계의 여러 문제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올바른 교리는 올바른 사고 방식과 같은 것이어서, 성령님과 그리스도의 강건함이 함께할 때, 나쁜 상황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주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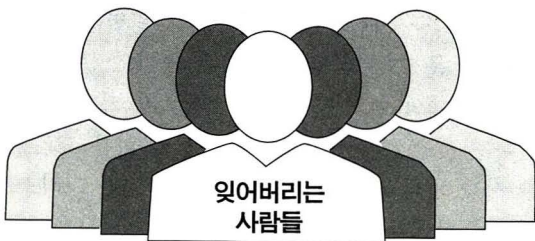
만약 교회가 이러한 지식관을 갖고 있지 않다면, 교회는 덕을 세우기보다는 교만하고 가식적인 사랑을 보

여주게 될 뿐입니다.(고린도전서 8:1-3)

개인 또는 그룹 공부를 위한 질문

1. 교육이 교육을 위한 교육으로 전락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고린도전서 8:1-3)
2. 무엇이 교회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까?(에베소서 4:1-15/ 골로새서 1:28,29)
3. 교회가 초신자를 기성 교인의 수준이 아니고 초신자의 수준에 맞추어 교육시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4. 왜 올바른 교리는 곧 올바른 사고 방식과 동의어로 여겨져야 합니까?

(5) 잊어버리는 사람들(FORGETFUL PEOPLE)



만약 사람들이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잊지 않고 산다면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될는지 상상

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은 시험 시간에 필요한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 다시 노트를 보며 복습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남편들은 자기 부인의 필요에 대하여 깊은 사려와 애정, 그리고 이해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친구들은 전화하는 것과 편지 쓰는 것을 잊지 않으며 중요한 날이나 기념일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나 학식 있는 사람이나 천재들도 기본적인 상식을 습관적으로 잊고 사는 곳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다음은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젊은 지도자에게 “교회를 돕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훼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 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말이 미쁘

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
 익하니라”(디도서 3:1-5,8 / 참조. 히브리서 3:12-
 14)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새로운 것만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
 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자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지금의 우
 리가 되었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종종 잊어버
 립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
 다.

- 세속적인 권위를 존중하는 일(1절)
- 다른 사람을 돕는 일(1절)
- 비방하지 않는 일(2절)
- 화평케 하는 일(2절)
- 온유하여야 할 일(2절)
- 겸손하여야 할 일(2절)
- 전에 어리석은 자였다는 사실(3절)
-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았다는 사실(4-7절)

잊어버리는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기억하도록 서로서로 자주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겸손한 방법으로 주님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도록 서로 일깨워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험난한 인생살이를 잘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도록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개인 또는 그룹 공부를 위한 질문

1. 기억과 지성은 왜 동일하지 않습니까?
2. 영적인 것에 관해서도 “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어느 정도로 의미가 있습니까?
3. 사도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것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까?(디도서 3:1-8)
4. 히브리서 3:12, 13에 따르면, 죄와 기억력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5. 성도들이 잘 잊어버리는 것과 관련하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6)고난에 처한 사람들(TROUBLED PEOPLE)



몸과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결성된 것이 바로 헬스 클럽입니다. 이곳에서 조연자들은 건강을 위하여 적당한 운동,식이 요법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연령층과 특별한 취미를 가진 그룹을 위해 매일 강의를 합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의 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운동 기구, 일광욕, 수영장, 강의시설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클럽의 유일한 문제는 이 클럽의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매정하게 그리고 소리 없이 클럽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심장병이나 암, 혹은 다른 불치병으로 눕는 사람들이 가장 빨리 회원 자격을 잃게 됩니다. 비만증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회원 자격을 박탈당하여 회원증을 회수당합니다.

“당신이 정말 한다면 기꺼이 당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헬스 클럽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자격 있는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이들 헬스 클럽과는 다릅니다. 처음부터 주님은 특별히 고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남다른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 유의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같이 하라… 규모 없는 자들을 권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9,11,14,15)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귀찮게 하거나 우리에게서 엄청난 시간을 빼앗는 사람들에 대하여 화를 내거나 참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바로 세우기 이전에 이들 때문에 우리가 먼저

지쳐 넘어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의미 심장한 말로 우리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주께서 우리가 그의 진노가 아닌 그의 구원을 받도록 예정해 놓으셨다고 말했습니다(9절). 그리고 우리 역시 다른 사람에게 위안을 주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11절).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들 때문에 좌절하거나 화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자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 믿음의 지도자들을 귀히 여기는 것(12,13절)
-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는 것(14절)
- 마음 약한 자들을 안위하는 것(14절)
-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14절)
-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14절)
-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15절)
- 모든 사람의 선을 좇는 것(15절)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유복하고 강건하며 자족하여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만 인도하지 않고, 약하고 용기와 위안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가르치심과 행하심에 일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의인을 돕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며 건강한 자를 돕기 위해 온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상한 심령을 치료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오셨습니다.(누가복음 4: 18)

예수님은 앞으로 심판 날이 되면 우리 모두가 인간의 고통을 보면서 그 앞에서 행했던 행위를 들추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연민의 마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심판 날에 예수께서는 혹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 : 34-36, 40)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이 심판의 세세한 내용에 대하여 모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

입니다.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주께서는 고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무한한 관심을 보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관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상한 심령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도록 계획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부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들어 죽어 가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열려 있는 영적인 헬스 클럽을 세우는 것입니다.

개인 또는 그룹 공부를 위한 질문

1. 어떻게 하면 헬스 클럽이나 교회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회원권을 박탈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물려나게 할 수 있습니까?
2. 데살로니가전서 5:9에서 볼 수 있는 우리를 향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14,15절에서 요구하는 친절한 보살핌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니까?
3. 교회에서 사람들이 어떤 교인과 교제를 끊는 경우, 그것이 사사로운 이유에서인지 그 사람을 위해서인지 어떻게 분간할 수 있습니까?
4.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에, 심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어떻게 미연에 방지되고 있습니까?

(7)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 (LOST PEOPLE)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숲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어린아이, 비행기 사고로 바다에 추락하여 표류하는 사람 혹은 치매증(알츠하이머 병)으로 추운 밤 자기 집을 찾지 못하는 노인을 생각해 봅시다. 길을 잃은 사람들은 어떤 도움이나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어떻게 찾아 자신을 보호할지 그리고 어떻게 생활을 하여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길을 잃은 이들에겐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혹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목표 없이 인생을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아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람만이 가는 천국이 있다는 것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꿈꾸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한 도움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묘사한 부자처럼 죽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슬픈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자와 그의 조상 아브라함 사이에 오고간 대화를 묘사합니다. 두 사람은 큰 구렁을 사이에 두고 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소개됩니다. 예수님은 부자의 말을 다음과 같이 전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애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며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누가복음 16: 24-31)

이 말씀은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에 관하여 매우 깊은 통찰력을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의 처지가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가를 보여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물질적인 행복이란 매우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의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을 보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더 늦기 전에 교회의 도움과 경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은 길 잃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19절)
-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은 자신이 길 잃은 사실을 모릅니다(19절)
-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은 부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19-21절)
-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은 고통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다(23, 24절)

-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은 자비를 애걸할 것입니다 (24절)
-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25, 26절)
-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타이르지 못합니다(24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전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로는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그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의 구석구석, 수많은 별들의 숨겨진 곳, 깊은 대양 그 밑바닥 그리고 산들의 꼭대기를 살펴보십시오. 거기에서 당신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진리보다도 더 먼저 발견해야 할 진리가 있는지 찾아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에 “잃어버린 바 된 자”와 같이 되는

것이 어떠한 기분일까를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저 세상에 한 번 가 보았다면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급한 일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교회, 컨트리 클럽, 긴장을 푸는 목욕 시설, 직장, 알래스카 여행 또는 거실의 안락함과 유선 시설까지 갖춘 텔레비전 수상기 등 자신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 1-10점까지 점수를 매긴다면 교회는 몇 점이나 될까요?

바다에 표류하는 자가 구조 비행기를 찾는 것 이상으로 영혼의 길을 잃은 자에게는 교회가 절실하게 요구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어 특별한 능력을 주십니다(에베소서 4:11).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의 메시지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할 책임을 주셨습니다(마태복음 28:19,20). 하나님은 교회가 그 구원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권능을 부어 주셨습니다(사도행전 1:8).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길 잃은 모든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몸된 교회를 준비시키셨습니다.(데살로니가전서 5:11-18)

“교회가 세상을 향해 지옥이 있음을 경고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러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면 누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버려진 상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겠습니까? 교회가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의 참모습을 전하지 않는다면, 컴퓨터 회사나 자동차 회사가 그 일을 담당하겠습니까? 아니면 전화 회사가 담당하겠습니까?(요한계시록 20 : 11-15)

개인 또는 그룹 공부를 위한 질문

1. 숲속에서 길을 잃은 자와 영혼의 길을 잃은 자의 상태는 어떤 면에서 비슷할까요? 또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2. 누가복음 16 : 19-31에서 예수님은 길 잃은 영혼들의 무서운 상태를 보여 주기 위해 무슨 내용을 특별히 설명하고 있습니까?
3.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힘든 문제는 무엇입니까?(누가복음 16 : 27-31)
4. 교회가 교인뿐만 아니라 아직 교회 밖에 있으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려 줄 수 있습니까?

4

어떤 교회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부활하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께서 마지막으로 기록된 말씀 속에서 1세기의 일곱 교회들에게 각각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비판이 담긴 이 짧은 계시들을 통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

- (1) 각 교회가 그 자신의 특별한 성품 가운데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주의를 집중하도록 하였고,
- (2) 각 교회들이 행한 칭찬받을 일들을 기록했고,

- (3) 그들이 충성되게 힘써 일할 수 없도록 하고 그리스도와
의 관계를 해치는 문제들을 지적하셨으며,
- (4) 그들이 가진 좋은 특성들을 끝까지 지키도록 격
려했고,
- (5) 부족한 부분들을 회개하도록 촉구하셨으며,
- (6)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고,
- (7) 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승리자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 부지런히 일한 에베소 교회(요한계시록 2 : 1- 7)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일했고 주께서 가르치신 교훈
들을 분별하여 거짓을 밝혀냈으며 잘 참고 견디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긍정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는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섬기는 일보다 열심히 일하고
거짓교사들을 분별해내는 일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으
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바쁘게 일하면서
교리적으로 보수적인 이 시대 우리의 교회가 마음 깊이
생각해야 할 미묘한 것들입니다. 만약 회개하여 바로잡
지 않고 사랑이 식은 상태에 계속 머문다면, 이 교회는
주님께 속한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는 교

회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2) 고통당하는 서머나 교회(요한계시록 2 : 8 - 11)

서머나 교회는 책망받지 않은 두 교회 중의 하나였습니다. 주님은 책망 대신 이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고통받는 것에 대해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가난한 것같이 보이나 사실은 부요한 자들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주님은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혹독한 시험을 받고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죽임을 당하겠지만, 그럼에도 그들 앞에는 놀라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음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원수들이 끝내는 맞이해야 할 두번째 죽음을 그들은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속한 교회도 영원의 빛을 바라보며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3) 나쁜 환경의 버가모 교회(요한계시록 2 : 12 - 17)

버가모 교회는 사단과 이웃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문제를 가진 교회였고,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범했던 실수들을 저지르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신실한 믿음을 가졌음을 확실히 인정해 주시면서 동시에 잘못된 것들과 타협하는 관계를 맺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날카로운 말씀의 검을 가진 자라고 하시며 진정한 만족은 그 분께 신실하게 믿음을 지킴으로써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 교회는 아주 나쁜 환경에 둘러싸여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영화롭게 해야 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4) 음란한 거짓 선지자와 타협했던 두아디라 교회(요한계시록 2: 18~29)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 교회보다 훨씬 위험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가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로 일한 것과 처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음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재앙의 칼이 임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적 우상 숭배와 영적으로는 적당주의적인 교리를 용납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시는 불꽃 같은 심판의 눈과 심판의 발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이 위험스러운 교훈을 제거하면 많은 것을 얻을 것이나 회개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잃어야 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높은 성적 도덕 규범을 유지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5) 믿음의 잠을 자는 사데 교회(요한계시록 3 : 1- 6)

사데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도 실제로는 위험한 상태에 있는 교회를 보게 됩니다. 감찰하는 눈을 가지신 그리스도는 이 교회가 받고 있던 평판 속에 가려진 참 모습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분명히 다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해 칭찬했던 것과는 반대로 주님은 영적으로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사데 교회의 많은 교인들은 지난날 그들이 성취했던 것들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빈 껍질뿐인 경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신 주님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고 그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이 형식주의를 회개하여 정신을 차리지 않

고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인정받았던 것들을 곧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 함고 견디는 빌라델비아 교회(요한계시록 3 : 7-13)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랑스럽게도 서머나 교회와 함께 주님의 꾸지람을 듣지 않은 교회이자 아주 제한된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갖고도 신실하여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한 것에 대해서만 겨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주신 말씀 중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말씀은 주님 자신이 이 교회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진 자로 나타내시면서, 자신을 대신하여 교회가 신앙의 승리자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사람들을 그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겠다고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또 온 세상에 임할 심판의 시간에 이 교회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은 신자들이 그들의 능력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졌는가에 따라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7) 자기 만족에 빠진 라오디게아 교회(요한계시록 3: 14-19)

이 악명 높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입에서 뱉어 내고 싶어하신 물과 같은 교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과 같은 상태가 된 것은 교회가 오직 그 자신이 처한 환경에 기대었기 때문입니다. 물의 온도로 표현하면,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신선한 느낌을 주는 차가운 물도 펄펄 끓는 뜨거운 물도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의 믿음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 속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떠날 정도로 악화되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며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상업적인 번영은 교인들이 주님이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안이한 영적 상태로 빠져들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님은 자신을 “아멘”(마지막 말씀)이라고 했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그분은 신뢰할 만함)이라고 했으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만물을 창조하셨고 잘못된 것은 곧 아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가 수치를 느끼도록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자신을 세상의 가치와 비교함으로써 자신을 속여 왔습니다. 늘 “심령이 가난해야” 하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계속해서 자기 만족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노골적으로 책망하는 것이 오직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영적 아름다움을 알지도, 소유하지도 못한 상태에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인들이 외적인 물질의 풍요함을 가지고 자신의 상태를 보지 말고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하는 믿음의 눈을 통해 자신을 보고 판단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교훈들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는 다음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회
-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가진 교회
-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 도덕적 순결을 유지하는 교회
-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 복음 증거에 신실한 교회
-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는 교회

5

완전한 교회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교회를 정의하면 성경에 나타난 교회는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도 완전하신 구세주 때문에 정기적으로 함께 모이는 불완전한 사람들로 구성된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실재하는 모든 교회는 완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모두 완전한 주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의 피로 값 주고 사신 용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 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며 그의 의를 선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선물은 :

-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 자신을 구할 능력이 자기에게 없음을 인정하고,
-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믿고,
-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고,
-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완전한 교회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란 깨어지고 홀로 서지 못하고 완전치 못하고 배워야 하고 잊어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고난에 처하고 한때 잃어버린 바 되었던 영혼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은혜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치 못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어서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도
없고 또 이기지도 못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 : 18)

한국 오늘의 양식사

■ 구독 신청과 독자 주소·전화변경 받는곳

전 화 : (0342) 780-9565~7

F A X : (0342) 780-9569

E-mail : odbkor@hitel.net

인터넷 : <http://www.hallelujah.or.kr>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32 우편번호 : 463-070

■ 선교헌금 안내

오늘의 양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하여 권당 450원의 제작비를 도울 선교헌금을 보내 주심으로써 문서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좌번호·예금주 : 「할렐루아선교원」

한빛 : 122-143075-01-101

한빛 : 132-05-108980

국민 : 097-01-0199-703

서울 : 16301-1886909

외환 : 026-13-33750-7

제일 : 107-10-109840

농협 : 001-01-214911

조흥 : 308-01-137748

우체국 : 012773-0026681

■ 섬기는 분들

발행인/김상복 편집장/김승호 고문/최태의 위원장/김경현

봉사위원대표 : 총무/차일환 기획/정호균 회계/최석주 관리/이종규

출판/이덕진 발송/임길택 홍보/김대환 상담/김영자

제작/소망사 : 733-4242 · 팩스 : 733-4243

신앙 성장 시리즈 ②

교회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인 쇄 / 1999. 10. 25

발 행 / 1999. 10. 30

발행처 / 한국 오늘의 양식사

전 화 : (0342)780-9565~7

①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가 좌절감, 고통, 슬픔에 잠길 때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② 교회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즐거운 신앙생활 안내

③ 오 신실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죄 용서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

④ 복있는 사람

진정한 행복이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참 행복의 설계

⑤ 균형있는 가정생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있는 가정생활

⑥ 왜 살아야 하나?

삶의 의미와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 하루하루를 뜻있게 사는 길

⑦ 행복한 결혼생활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공적 결혼의 10가지 요소

⑧ 남자다운 남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남자! 그 모습대로 완성되어 가는 길

⑨ 여자다운 여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여자의 모습!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인의 삶

⑩ 걱정없이 살고 싶다

왜 걱정합니까? 걱정없는 삶의 성경적 해답

⑪ 다시 찾은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첫사랑의 감격과 활력을 회복하는 길

⑫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다섯 가지 기본원리

「신앙성장 시리즈」 구독신청 및 선교헌금 안내

회원및 헌금자	성명	전화										
성명	주소	(우편번호 :)										
성명	주소	전화										
성명	주소	(우편번호 :)										
출석교회	직분											
시리즈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신청부수												
헌금입금은행 : ()은행												

■ 선교헌금 안내

『한국 오늘의 양식사』는 『신앙성장 시리즈』를 통하여 성도들의 영적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이 책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하여 제작비(권당 600원, 운송료 포함)를 도울 선교헌금을 보내주시므로써 문서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계좌번호 <예금주 : 할렐루야선교원>

한빛 : 122-143075-01-101

한빛 : 132-05-108980

서울 : 16301-1886909

우체국 : 012773-0026681

동협 : 001-01-214911

조흥 : 308-01-137748

국민 : 097-01-0199-703

제일 : 107-10-109840

외환 : 026-13-33750-7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32 『한국 오늘의 양식사』 우편번호 : 463-070

전화(0342)780-9565~7 FAX (0342)780-9569

신앙 성장 시리즈 ②

『교회 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막상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는다 면 어떻게 대답해야만 할지 막막한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엇이며 교회의 참된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성장을 위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이 소책자는 교회의 본질에 관한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명쾌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교회는 후원모임인가?
- 교회란 무엇인가?
- 교회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 어떤 교회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 완전한 교회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이 책자는 미국의 R.B.C(Radio Bible Class)에서 발행한 “Who Needs the Church?”를 『한국 오늘 의 양식사』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번역 출판한 것입니다.